

安東權氏樞密公派大譜序文

邦國有史하고氏族有譜는本於有其國而必有史하고有其族而必有譜하니此는當然之事也
斗尋其源而推知其流之長하고探其根而亦知其葉之茂하니史與譜는使其國與族已自上達
下로鑑照千古하야自覺善福惡禍하야禍福이無門에維人自召斗故로恭敬待上而能崇祖하고
慈愛及下而亦保幼하야不知中實行老老幼幼之心하야推而能家齊國治하고逆此而國亡家敗
하니此는昭昭乎東西各國古今之史요明明乎此姓彼姓之譜하니孰敢不認乎아然而我東邦
則檀君聖祖開國이已經五千餘年而歷史僅存者百不其一하고略詳記世代者不過數千年이라
羅麗百濟之遺史도僅存者幾稀하니此는無察原於外勢之侵犯과國人之阿附於外勢者가湮滅
自國之正史—至于千有餘年하니氏族之譜가豈可獨存乎아僅存者口口相傳者也斗此禍는無
乃古今阿附於外勢者輩之所行으로其蹟之慘이百倍於外人하니可憎이로다然故로氏族之譜
를無處可傳而吾門中先祖創建成化譜하니此는我東邦氏族譜之元祖也斗先記始祖得姓之由
와功業之偉蹟과子孫之繁延하고次記歷代昭穆與支派之繁昌하야上而崇祖하고下而睦族하
야喚起萬姓之夢中未醒者하니成化譜之創刊은其功이偉歟盛哉로다其後吾族之繼譜七八次
而番番不能完壁者는勢所難免者也斗舊時代之交通이不便하고兼以團合이果難하고上下階
際之差가亦不調和하야漏於收單者番番果多는難免之事也斗然而於中家家有乘하고派派有
牒하야雖各記述爲難免百弊가俱生이斗不得已吾門中僉議合一하야更修吾門中十四派中巨

派인樞密公派大譜하니其後經過間多難關而事必歸正하야今僅告功이라然而不肖泰勳은吾門中之卑族을族所共知어늘衆論推不肖泰勳囑都有司之任故로再三固辭而不得已受任하니實容身無地也라然而又囑不肖而記述序文하니固辭不得已塞責함이라夫族譜는先公正記述祖先之盛德偉業하야使子孫으로喚起崇祖理念하고次述世代昭穆하야使後世子孫相互親睦하니小以思之則一族之幸也오大以思之則萬姓이皆効此意則族可平和하고國家興隆하야國史自然公正하야國泰民安을可望而致之也라推此而舉世皆然則此는我東邦檀祖弘益人間理念之實現也라此不肖泰勳自幼至老念願者故로此意를插入於序文中하고繼述譜中歷代祖先之功蹟記述은諸祖先各派先祖諸公之記述이已詳故로闕之하고現國內實情이南北이分斷하야思想이對立하고經濟不豐하야民生이未洽하고國防力이日復日增而僅保自守하되姑未及於優勢하니國家民族이共處於難關中奚暇에不失倫常乎아際此百難之中에吾族之修譜는亦一倫常之壯舉也라然而各派之呼應이僅保體面이오收單之數가遠未及於全族하니勢也奈何오又收單中祖先行蹟은叙實하야至公至正이라야是修譜之本意也어늘或歷訪印刊處閱他譜則校正之眼이少弛하면行蹟叙實이變爲增衍附翼하고甚至於世代錯誤하야換父易祖之汚点이間或有之則不肖泰勳이心祝者는今番吾門大譜收單時에無如此汚点則萬倖이로다末尾數語贅附는乃不肖泰勳生平所信者故로知罪插入하오니上下僉族은寬恕如何오白山大運은天已明示하야三十年前甲午에五福星이入艮하고二十年前壬寅에五星이聚斗하고壬戌에五星

이大放光於斗星分野하니此是我東方三千年大換局之兆에兼而黃白交泰之大運也라際此時則南北統一은尚至勿論이요吾族大興하리니今日修譜之未洽을待其時而完璧하리이다

檀紀四三一六年癸亥正月

日

樞密公二十三世不肖孫 泰勳 知罪謹記

序

우리權門은 太師公以來 長長 十世紀半의 悠久한 歷史를 지닌 東方甲族으로서 子孫이 蕃衍하여 百萬巨族으로 成長하는 동안 一家九封君 菊齋公을 頂点으로 名公巨卿이 連綿不絶하여 東邦姓氏中 斷然 首位를 占하는 名門으로서 内外에 그 威德을 誇示해 왔다

더욱이 宗法이 없던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貴重한 氏族史料인 族譜를 編纂刊行한業績은 우리 民族史에 劃期的인 한 章을 열어 놓았다고 하겠다

그러나 成化譜 敕刊以來 大同譜만도 八回 刊行되었을 뿐 아니라 吾門의 十四派中 舉皆가 派譜를 刊行하였음에도 不拘하고 大宗을 이루고 있는 우리 樞密公派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派譜를 保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至極히 悚懼스럽고 遺憾된 일이 아닐수 없었다

多幸히 派親有志의 發議로 樞密公派大宗會의 結成을 보게 되어 爲先事業으로 派譜

刊行을 議決하고 收單에 着手하였던바 最初로 試圖된 企劃인지라 京師를 中心으로 하여 全國一圓에 散在해 있는 諸門中の 所在을 把握하기 힘들었을 뿐 아니라 南·北이 分斷된 狀況 아래서는 在北派親의 收錄이 全然 不可能함에도 不拘하고 京鄉各地의 大多數門中이 欣快히 同參하여 全帙二十八卷의 大譜를 完刊할 수 있게 된것을 全體派親과 더불어 眞心으로 기쁘게 生覺하며 有司諸位의 四個星霜에 亘한 勞苦에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들의 派祖이신 樞密公께서는 『清廉潔白하시고 굳게 志操를 지키셨다』고 麗史에까지 記錄되어 있으며 公의 孫 文清公께서도 亦是 한가지로 全史에 傳해 오고 있다 그러기에 外裔 徐四佳도 그의 成化譜 序文에서 『權氏는 代代로 清白으로써 傳家하고 忠孝로써 立心하였으니 子孫된 者는 可히 祖先이 쌓은 德을 恒念하여 그를 繼承할 方道를 講究하지 않으려는가』라고 讚辭를 곁들여 勸告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다시 詩傳의 『祖先을 欽慕치 않고 어찌 德을 쌓을 수 있으랴』는 句節을 引用하여 『내 다시 權氏子孫을 爲하여 勸하노라』고 忠告하고 있다

大抵 收譜하는 目的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들이 오래도록 渴望하던 派譜를 刊行함에 즈음하여 그 窮極的인 目的을 生覺해 보는것도 有意義한 일이다 하겠다 禮記에

『사람의道理는 어버이를 親하는데 있다』 따라서 『어버이를 親하면 祖先을 尊敬하게 되고 祖先을 尊敬하면 宗族을 恭敬하게 되고 宗族을 恭敬하면 收族을 하게 된다』 고明快하게 結論지어져 있듯이 收譜의 根本精神은 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晚時之嘆은 있으나 이제 우리도 大譜를 刊行하므로서 清白을 信條로 하고 忠孝를 家訓으로 傳家해 주신 歷代 祖先의 鴻恩에 報答할 수 있게 되었음을 더없이 기쁘게 生覺하며 그러기에 우리 子孫들은 收譜精神과 合致되는 祖先傳來의 崇高한 敎訓을 遵守하여 家門을 더욱 빛낼 覺悟를 새로히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믿는다

西紀一九八三年癸亥正月 日

樞密公二十四世孫 寧大 謹序

樞密公派大譜跋

孔子曰夏禮를吾能言之杞不足徵也며殷禮를吾能言之로宋不足徵也는文獻이不足故也라 하셧으니以天縱之大聖으로도文獻이不足이면則不可證也라 하시니況數千載之下後世之人乎아是故로國有史而帝王之承統과治亂奸善之分이顯焉하고家有譜而祖宗之昭穆과尊祖敦族之義가生焉하니修譜之義가可不重歟아吾權이始自高麗——太師公受姓以來로名相巨卿과道學文章과節義勳功이詳載靑史하야輝瑛萬世하고昭穆宗支가詳載譜牒하야徵千百世也

니라迺於庚申春에自樞密公派大宗中으로始發議樞密公派大譜之論할새京鄉親族이咸悅誠服하야開會于서울惠化洞大宗會所하고修譜事則詢謀僉同故로於是에派定有司하고西至漢城南往羅嶺等地的探頤尋遠하야無漏收單하야設譜所於서울明倫洞하고迄于四個星霜하야工告訖하니其間에任員功力이豈不誠且勤乎아然이나使後昆讀文獻則觀感興起가如親承詩禮之風이요觀墓圖則僻居遐陬之孫이雖不躬省先墓나必有忱惕永慕之心矣이리니此豈非美事며善規乎아嗚呼라以世擾로南北이分斷되어以地域開發로坊曲이變遷하야距今國土가項同桑海之變하니若不修譜則先代墓所를新進子姓이但憑於舊譜하야新舊地名을至於難辨하리라老者逝而葬之祭之에墓所와忌日을從何而徵之며幼者長而娶之子之에配位姓本과子孫名字를因何而證之乎아使讀者로開卷則宗支派系가昭然하야疎者親之하고遠者近之하야尊祖敬宗之誠과孝悌之心이油然而生하고欣然而著焉하야後世子姓이可徵而不至於文獻不足之歎矣러니不亦善乎아然이나北韓族親은以世擾로不得已漏譜하니此亦欠焉이로다宗中長老囑余記之하니余以無德不文으로固辭不獲하고敢忘僭越하야謹綴數語하고以爲跋焉하노라

歲癸亥仲春上浣

成化譜序

權本新羅宗姓金氏也羅季有金公幸者守古昌郡時甄萱入新羅弑王辱妃高麗太祖赴救與萱相持幸謀於衆曰萱義不共戴天盍歸王公以雪痛憤遂迎降麗祖曰幸能炳幾達權乃賜姓權授太師以郡爲食邑陞爲安東府幸生仁幸官至郎中仁幸生冊冊自求爲本邑吏權氏自冊爲吏以還中微不振者七世至守平復興子孫趾美逮文正始大顯隆守洪之後文坦亦復貴顯權氏遂分爲二大族今衣冠簪履布列朝著餘數千指皆二族支派也居正外祖陽村權文忠公近亦文正曾孫舅氏權文景公跽始修家譜小牒子吉昌權翼平公肇承先志廣採博訪大加增潤亦未就緒居正與尚州判官朴元昌大邱府使崔灝元又加搜問補其闕遺證其訛僞釐爲圖譜二卷其爲譜詳於文正文坦以下而略其上者錄其所可知而缺其所不可知將以傳信將來耳譜既成情慶尚監司尹公壕刊于安東府予惟古者有宗法序昭穆別支庶子孫雖百世可考自宗法廢而譜牒興凡爲譜必推本其所自出而詳錄其所由分明支派別親疎猶足以篤恩誼而正倫理者矣隋唐而上置圖譜局有郎吏以掌撰述婚姻選舉皆關譜牒今中朝上自公卿大夫下至孤門單族亦莫不有譜上自唐虞三代始封之祖而祖之雖高辛神農顓頊之遠皆一一接續而序次其譜系豈不以圖牒相傳得有所考歟吾東方自古無宗法又無譜牒雖巨家大族絕無家乘纔傳數世有不記高曾祖考名號者子孫浸以乖隔或不識總功之親視同路人何待服盡親盡而疎且遠哉如是而欲興孝悌成禮

讓豈不難乎 此吾文景翼平 所以惓惓於著譜而居正之勉卒其志者也 權氏自太師始封今六百年 子孫蕃衍 詩書之澤 悠久未艾 盖根深者末茂 源遠者流長 理之必然也 嗚呼自古名宗華胄 不爲不多 當其珪組蟬聯 門地煥赫 孰非可慕而可尊者乎 曾未數傳 傾覆剿絕何哉 由其先世封植未固 而子孫遽以驕奢失之也 權氏世以清白傳家 忠孝爲心 爲子孫者 可不念祖宗積之之勤 而思所以繼之之道乎 記曰人道親親也 親親故尊祖 尊祖故敬宗 敬宗故收族 若能始於親親 推及九族則所以厚本敦末者 豈有窮哉 詩曰無念爾祖 聿修厥德 吾更爲權氏子孫勗之 成化紀元之十二年蒼龍丙申正月日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行議政府左叅贊 兼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達城君 徐居正 剛中 叙

譯

權氏는 本來 新羅의 宗姓 金氏이다 新羅末葉에 金幸이라는 분이 古昌郡을 지키실때 甄萱이 新羅에 侵入하여 王을 죽이고 王妃를 목보였기에 高麗太祖가 救援에 나서서 萱과 對戰할때 幸이 여러 사람과 相議하기를 萱은 義理上 이 世上에 같이 살 수 없는 터이니 王公에게 歸依하여 이 痛憤함을 雪辱하지 않겠느냐 하고 드디어 迎接해서 歸依하니 高麗太祖가 말하되 幸은 能히 微機에 밝고 權道에 通達했다 하고 權氏로 賜姓하고 太師를 除授하였으며 本郡을 食邑으로 하여 安東府로 昇格시켰다 幸은 仁幸을 낳았으니 벼슬이 郎中에 이르렀고 仁幸은 冊을 낳았으니 冊이 願하여 本邑吏가 되었다 權氏는 冊이 吏로 된 後부터 七世를 微微不振하다가 守平에 이르러 復興하고 子孫이 美慶을 繼承하여 文正公에 이르러서 비로소 크게 顯達하였으며 守洪의 後孫 文坦이 또 다시 顯達하여서 權氏가 드디어 二大族으로 나누어져 至今에 衣冠한 이와 벼슬

하여 朝廷에 布列된 이가 數千名이나 되고 모두가 二族의 後孫들이다. 나의 外祖父 陽村 權文忠公 近도 또
 한 文正公의 曾孫이며 外三寸 權文景公 跼가 비로소 家譜小牒子를 만들었으며 吉昌君 權翼平公 擘이 그 先
 人의 뜻을 이어 널리 文獻을 찾고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많이 增補했으니 그래도 完成하지 못하였다. 내가
 尚州判官 朴元昌과 大邱府尹 崔灝元과 더불어 또 수소문하여 빠진것은 補充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圖譜二卷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文正公 文坦公 以下는 昭詳하지만 그 以上은 疎略하게 되었다. 그것은 아는
 것은 記錄하고 모르는 것은 闕略한 탓이니 곧 信으로써 將來에 傳하려는 것이다. 譜牒이 이루어 져기에 慶
 尚監司 尹壕를 시켜 安東府에서 刊行케 하였다. 생각하건대 옛적에는 宗法이 있어서 昭穆의 序次와 支庶의
 分別을 子孫들이 雖百世後에라도 詳考할 수 있었으나 宗法이 廢止된 後부터는 譜牒이 盛하였다. 譜牒을 만
 드는 것은 태어난 根本을 찾고 分派된 緣由를 詳細히 記錄하여 支派를 밝히고 親疎를 分別함으로써 恩誼를
 敦篤히 하고 倫理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隋와 唐以前에는 圖譜局을 두어서 郎吏가 그 撰述을 맡았으며
 婚姻과 選舉가 모두 譜牒에 關係되었던 것이었다. 지금 中國에서는 위로는 公卿大夫로부터 아래로는 孤門
 單族에 이르기까지 譜牒이 없는이가 없어서 저 唐虞三代때 始封한 祖上으로부터 祖上을 삼고 있는 까닭
 에 高辛 神農 顓頊의 遠代라도 다 一一히 接續되어서 그 譜系를 이루고 있으니 만약에 圖牒이 傳해지지 않
 았더라면 어찌 考證할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自古로 宗法이 없었고 또 譜牒도 없어서 비록 巨家大
 族이라도 家乘이 全然 없어서 겨우 몇대를 傳할 뿐이므로 高祖나 曾祖의 이름과 號도 記錄되지 않은 집도
 있다. 子孫이 漸漸 멀어지고 居所가 相隔하게 되면 或은 總功의 近親일지라도 알지 못하고 路人처럼 보게 될
 터이니 어찌 服이 盡하고 情이 盡하여 疎遠하여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랴. 이르고서야 어찌 孝悌를 興起
 하고 禮讓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것이 文景公과 翼平公이 譜牒著述에 惓惓한 바이고 내가 그 뜻을 達成시
 키려고 힘쓴 까닭이다. 權氏는 太師公이 始封된 때부터 지금까지 六百年간에 子孫이 蕃盛하여 詩書의 遺澤

이 오래도록 끊어지지 않으니 卽 뿌리 깊은 나무가 枝葉이 茂盛하고 水源이 먼 江물의 흐름이 長久함은 必然한 理致와 같다 아! 自古로 名門華族이 많으며 高官이 繼承하여 家門이 赫赫함을 누구나 景慕하고 尊敬하지 않겠는가 마는 數世를 傳하지 못하고 곧 傾覆되어 끊어짐은 어떤 일일까 그는 先世에서 심은 德이 鞏固하기 도 前에 子孫이 그만 驕慢하고 奢侈하기 때문에 잃어지는 것이다 權氏는 代代로 清白으로써 傳家하고 忠孝로써 立心하였으니 子孫된 者는 祖先이 부지런히 쌓은 德을 恒念하여 이에 繼承할 方道를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안다 禮記에 「人道는 어버이를 親한다」 하였으니 어버이를 親하기 때문에 祖先을 尊敬하고 祖先을 尊敬하기 때문에 宗族을 恭敬하고 宗族을 恭敬하기 때문에 收族을 한다 萬若에 어버이를 親하는데 서 비롯하여 九族에 까지 推及하게 된다면 報本을 厚히 하고 宗族에 敦睦함이 어찌 不足하다고 하겠는가 詩傳에 「너 祖를 생각하지 않으니 그 德을 닦을 지어다」라고 하였으니 내가 다시 權氏 子孫을 爲하여 勸하노라 成化十二年丙申正月 日에 純誠明亮佐理功臣 崇政大夫 行議政府左叅贊 兼藝文館提學 知成均館事 同知經筵事 達城君 徐居正 剛中은 叙하노라

成化譜跋

自高麗太祖 至于我 朝權幸子孫 蕃衍 其爲顯達者 難以枚舉 其未顯者 不知有幾 今達城徐相居正 以權文忠公外孫 因文景權相 躋翼平權相 擧兩公所撰族譜 更加彙集編爲三帙 使權氏宗支 會于一譜 雖微者 昭然可稽 倩于慶尚監司尹相壕 刊行 尹相 幸之裔二相適外玄孫也 亦樂爲之從 使刊于安東府 命鎮監督 不日功訖 徐相尊祖敬宗之意 益以著矣 歲成化十二年丙申三月 日 中訓大夫 行安東大都護府教授 崔鎮 謹跋

高麗太祖로부터 我朝에 이르기까지 權幸의 子孫이 繁盛해서 그 顯達한 이들을 一一히 들어 말하기 어려우며 顯達치 못한 이 또 그 數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 이제 達城徐正승 居正이 權文忠公의 外孫으로서 文景公 權正승 暉와 翼平公 權正승 曄이 編輯한 族譜를 다시 校正해서 編纂한 三冊으로서 權氏의 宗支를 모두 한 譜牒에 모았으니 바로 微微한 사람이라도 昭詳히 詳考할 수 있을 것이다 慶尙監司 尹正승 壕를 시켜 刊行케 하니 尹正승은 幸의 後孫 贊成事 適의 外孫이므로 從事함을 즐겁게 여겨 安東府로 하여금 刊行케 함에 있어 鎭에게 監督을 命하였으며 時日이 많이 걸리지 않고 完功하였다 徐正승의 尊祖敬宗의 뜻이 顯著하다 하겠다 成化十二年丙申三月 日에 中訓大夫 行 安東大都護府教授 崔鎭이 삼가 跋文을 쓴다

乙巳譜序

紀^가 往萬曆戊子間^에 承家命修世譜^{새한} 顧以孤陋寡聞^로 未敢下手於全譜^오 只自九代祖禮儀判書^로 鞠之後^로 不分內外支派^{고하} 撰成一卷^{니하} 其卷帙^이 極大^라 先人^이 愛其譜^{사하} 常坐臥^에 不離於側^로 不肖子不能保^{고하} 失於天將楊麻大軍南下之日^{니하} 罪不自容^{야하} 深念更謀收錄^{야하} 以慰先志^{니하} 時丁孔棘^{야하} 未暇措意於其間^{라이} 會都元帥權公慄^이 以高牙大纛^로 來祭于始祖之墓^{니하} 合境內宗人^이 設會于墓下^{고하} 座上宗老^가 合辭告于元帥曰 吾權氏舊譜板本^이 在本府而已失於倭賊^{니하} 平日印藏^을 而能保於亂離者^이 亦十無一二焉^{라이} 權氏之不倖^이 孰有大於此哉^오 又起而告曰 在京宗族中^에 必有能修之人^{니하} 願令公^은 極力囑成^이 何如^오 元帥曰 入京^에 當不忘僉教^나 但恐能手^을 未易得也^라 今日之會無慮百餘人^{니하} 此中^에 豈無人可托者乎^아 宗老對曰 權某可矣

元帥喜而進之^{다 이}執盞相酌^{야 하}曰前日之錄^{고 하}雖失於兵火^나尊先君之所勤念者^를不可孤負^{다 이}
須勉力再修^니以慰先靈^{야 하}副門望^{며 하}紀辭不獲命^{라 하}厥後都事權公縉^{나 이}給紙筆之資^{야 하}乃與^니
宗叔叅奉權行可氏^와及太師廟有司權重常^로協心同力^{야 하}貿楮造紙^{야 하}成正本若干卷後然^에方
擬修正全譜^{고 하}乃定有司^{야 하}通文於四境^{야 하}使之勿論同異姓^{고 하}限月日收錄^{니 하}或詳或略^에所錄不^一
乃更通問而得其實^{나 하}自此^로紀專心竭力於八年之間^{새 한}叅以己見^{고 하}質諸他人^{며 하}又取吾東
方諸家譜牒^{야 하}亦盡搜考而錄成草本^{야 하}常置案上^에紬繹琢磨^{새 한}在左見^에似無可疑然後^에遂親
手正書^{니 하}凡十六帙矣^라蓋今吾之譜^{나 하}非但譜權氏詳^{라 이}外派者^도依舊譜也^{야 하}盡其所知而略其
所未知者^{니 하}勢也^라吁^라譜牒明^{면 하}則親親之道立^{요 이}親親之道立^{면 하}則風俗^이正^{고 하}風俗^이正^{면 하}則
治教成^{니 하}譜苟不明^{면 이}則人之道滅^{야 하}而不近於禽獸者^나幾希^라然則譜之關於風化者^나大矣^라
紀^는本昧學^{야 하}無有所得^{나 이}追感先人勤懇之意^{고 하}又重元帥諸公之勸^{야 하}玆敢輯錄^{야 하}以冀明眼
之補闕正訛云^{라 이}萬曆乙巳^{라 이}月^{라 이}日^{라 이}二十三世孫^{라 이}叅奉^{라 이}紀^{라 이}謹識^{라 하}

甲午譜跋

昔^에陳后山^이有言曰^라自吾之親^로而至于忘之者遠也^라遠故^로譜之所由作也^{니 하}古人之
所以重宗尊祖者^나夫豈偶然哉^아惟我永嘉之權^이鼻於太師^{야 하}而自麗祖錫姓之後^로子孫^이繁
昌^{야 하}上下五百年間^에世襲冠冕^{야 하}至於一家九封君^{니 하}門戶之大^나於斯爲盛矣^라入我^로朝^{야 하}名
公鉅卿^이代不乏人^{대 호}或以勳庸^로記諸彝鼎^{며 하}或以文章^로鳴於國家^{야 하}赫赫在人耳目^{니 하}豈非先

祖之遺澤_이悠久而不斬者哉_아 太師公祠宇_가 在永嘉府內_{야하} 後嗣子孫_이 世守其祠_{야하} 至今罔缺_{니하}
思欲一者瞻拜_{야하} 以展追遠之誠者 此人情之所必至_나 而繫官于朝_{야하} 願莫之遂_{니러} 上年冬_에 適
承乏_{야하} 出接嶺南_{새한} 趨造墓所_{야하} 省掃封塋_{고하} 捐捧鳩材_{야하} 建置齋舍_{야하} 以爲永世崇奉之地_{고하} 退與
同宗若而人_{로으} 謀曰古者族有譜_{고하} 家有牒而獨於吾宗_에 尚今闕焉_{라이} 雖有大譜草本_{나이} 而不能入
梓_{야하} 於心_에 每有所歉然_{니이러} 茲者_에 善山伯 勛_과 星州牧 諱_이 俱以仍雲_{로으} 出宰道內_{야하} 與之同
事_{고하} 參互考證_{니하} 是亦天與之便也_{니라하} 皆曰諾_다 於是擇於同宗中別定修正有司_{야하} 裒集諸家所
藏譜草_와 兼摭衆說_{야하} 證定訛謬_{고하} 補其闕遺_{야하} 遂成安東權氏族譜一部_{니하} 宗派之別_과 疎遠之屬
靡不詳悉_{라이} 開卷瞭然_{니하} 其於報本敦叙之義_에 庶乎無憾矣_{라리} 至於子姓外裔_는 如欲遍記_{면하} 則
訛舛相承_{고하} 記不能詳_{며하} 簡帙太煩_{면하} 觀者病焉_{라이} 故_로 今姑略之_{야하} 以俟後之君子 繼是而張大
者也_라 嘗聞程子之說_에 曰收宗族厚風俗_{야하} 使人不忘本_{면하} 須是明譜系_{니라하} 凡我同宗之人_은 益
勉孝悌之心_{고하} 毋墜祖先之業_{야하} 使敦睦之義_로 世守而勿失_{면하} 則斯譜之作_이 其亦有補於風化之
萬一云爾_{라로} 歲甲午夏 後孫 慶尚道觀察使 兼巡察使 堉 謹跋_{라하노}

辛巳譜序

世之百族_이 皆有譜_나 然_{나이} 譜有四難_{니하} 祖世遠而枝派繁_{면하} 則難詳_이 一難也_오 一士之耳目_이 不
能周乎遠近_{니이} 若無敏達之士_면 惇此事者_이 不能助發聰明_{니이} 旁搜而博證_이 此二難也_오 孽孫_이 無
近嫡_{야하} 或蒙殘系之正派_{야하} 而亂其嫡_{고하} 閑民_이 規避役_{야하} 或窺功臣之絕緒_{고하} 而冒爲後_{니하} 不窮根

면이 不能明_{며하} 不明見_{면이} 不能正_이 此三難也_오 假今之擣掇_이 無所遺_{야하} 序列悉應實_나 或無能承其
後者_{나하} 明而俄且迷_{고하} 正而俄且紊_이 此四難也_라 夫單門族類_가 寡則易譜也_나 間亦難於窺領
而或不克若其當_{은이} 況譜名宗大族而歷道所難_에 若云四者_가 特其大略耳_{오이} 纖微之間_에 有不
可勝理者_{나하} 可遍而目言之哉_아 我權氏_는 積德累善之世也_라 自太師受姓以來_로 幾千年_에 子孫_이
大益盛_{야하} 上而公卿大夫賢英才學之士_와 文武有勳力之臣_이 接聲烈於朝_{고하} 下而布衣諸生_과 庶
人吏胥賤隸_가 盈於國中_{나하} 本一根_나 而條循而葉計之_면 則可千萬數_라 欲摠同貴賤而譜次之_{면하}
雖察士_나 不能_{요이} 若所出_이 微源系_{야하} 無所考而不可得以譜_는 不論_{요이} 即夫洪枝巨派_가 世之所訟
見而慕望者_이 及所自而嬗傳_{야하} 至夫見在人也_이 明_{면하} 有符頗可著者而序錄之差若不難_{대이}
而猶患夫包羅_{야하} 或不能悉_{고하} 又患夫莫與爲因資_{며하} 又患夫託邪隧塚之者_{고하} 又多他妄繆相紛者
故_로 吾宗之譜_이 視諸氏尤難_라 我朝初文景公躋_이 始爲家譜_{대로} 不及統輯一宗_{고하} 府院君肇_이 嗣爲
之_{대호} 亦不卒_{고하} 徐相國居正_은 文景之甥也_라 與判官朴元昌_과 府使崔灝元_로 踵成圖譜二卷_{야하} 梓行
之_{나하} 議者猶恨其闕漏多_{고하} 板刻遇難散失_{야하} 不復傳_라 後百數十年_에 叅奉紀_와 與叅奉行可_와 及
太師廟有司重常_이 因舊譜增修_{야하} 既屬草而時無能力_{고하} 爲此者不時授梓_에 卒伏不發_나 後五
十年_에 叅判堦_가 觀察嶺南_에 選於宗而主修宗譜_{야하} 通收諸家譜草_{새할} 省外裔_{고하} 定著宗姓_{야하} 爲譜一
卷_{야하} 刻之安東府而記載_에 略證校疎_{고하} 所爲聽察而是正之者_이 不能不令覽者_로 生之言_{라이} 後
幾五十年_에 縣監泰時氏_이 慨吾盛宗無全譜_{고하} 與府中宗人_로 通共嶺中諸宗世系_{야하} 釐爲七卷

蓋作始也_{나하} 己_{고하} 聞正郎胄氏_가 既修文忠公子孫錄_{고하} 因欲摠修宗譜_{새할} 乃將七卷譜_{고하} 遣詣家

願合成譜_{고하} 後有年_에 順興宗人胤錫_이 悶譜久不就_{야하} 私備梓累百板_{고하} 走告胄氏_{나하} 胄氏謝

病不能_{라이} 即取所爲譜并所集_과 右尹諤持平恒叅判珪_의 所修世譜_{야하} 歸之于泰時氏_{나하} 於是諸

家譜畢集_{라이} 與幼學壇_과 愷_과 萬矩_와 斗韓_과 處經_과 郡守聖矩_와 縣監斗寅等_{로오} 專志力_{야하} 領理諸

譜及所記聞於四方者_{야하} 叅互考對_{야하} 剗僞存眞_{고하} 要使統緒_로 明而曲故_로 不得容外派曾孫而止_{고하}

作原譜十一卷_과 別譜二卷_{나하} 凡十三卷_{라이} 雖不可曰大山之草_을 可盡數_요 上路之塵_을 可盡滌_{나하}

合羣賢之明智而蘇尋灑濯_에 審而勤也_과 設有遺莖餘埃_나 當亦少矣_{라이} 夫譜_나 非私_오 所譜者一

姓也_며 爲世教也_과 禮言尊祖敬宗_{면하} 收族之道已備_{나하} 此道也_나 上能之則大本_이 立於上_{고하} 下能

之則人道竭於下_{야하} 以至百志成_{고하} 禮俗刑_{나하} 此_나 上下交相冀者也_과 是以_로 后王_이 聽治_에 必

先治親_{나하} 治親_은 始於譜牒故_로 昔唐太宗_이 詔著天下世族志_{고하} 我世宗_이 命撰東國姓氏錄_{야하}

領天下國家而欲善治者_로 要賴此耳_과 然_{나하} 士之志於譜學者寡_{고하} 間亦有之_{데로} 而或不能竟其意

或_{며하} 或不翕於來情_{나하} 非直爲之難_{라이} 蓋亦不值_면 夫能於此而執終始者也_과 乃今吾宗譜_나 屢有得

失而始茲完定_{나하} 差須泰時氏耳_과 既敬賀譜成_{고하} 己_오 又以禮所謂者_로 深有望於我諸宗_{나하} 若今

往施續_을 願貽夫後之宗_{오이} 僞刊役則壇_이 有中主_{고하} 而工費用則前後觀察使_와 前後府伯_이 多所

助藉_{야하} 訖刻云_{라이}

崇禎丙子後六十六年辛巳夏四月 日 資憲大夫 行龍讓衛副護軍 權愈 謹序_{라하} 노

辛巳譜跋 其一

權太師内外子孫之蕃衍 其麗不億 實吾東方之盛族也 余於庚辰五月 知安東府 到官 所翌日 祇謁于太師廟 凡爲地主者 疇不仰止太師而余又忝居外裔之末 崇奉之道 安敢怠闕 禮訖 坐崇報堂 敬檢太師遺蹟 有若壇氏 萬矩氏 斗韓氏 三人 揖余而言 曰權氏譜牒 刊行於世者 非一本 而記載或疎 年代浸久 前縣監泰時甫 裒集定著 先成七卷 與雒中宗人私記之譜 合爲十三卷 分授同宗諸君子 精加校讎 仍付剞劂 氏數月而工斷手 使遐苗 咸知得姓之所自來 派流之所由分 其用意完譜 可謂勤且 摯矣 太學士愈公序語甚詳 更不容贅他 以余適守是府 預聞是役 諸君子 必使余 跋其後辭不得 略叙始末如是云爾 辛巳日南至 通政大夫 行府使 朴紳 謹跋

辛巳譜跋 其二

宗人 故縣監泰時氏 與宗人壇 澄 萬矩 斗韓 郡守聖矩 縣監斗寅 稔 舊所傳 成化年 間 徐四佳所修 權氏譜 及萬曆間 叅奉權公紀 所編十六卷 傍取近來 權政丞尚夏 權叅判珪 權持平恆 權僉正胃 所撰譜牒而先祖炭翁先生所修者 亦與焉 所聚 凡七家 又廣加搜訪 所聞益廣則參互考證 積六七年 成 元譜十一卷 別譜二卷則其用意 至勤且苦矣 同吾姓者 遍一國遐陬窮鄉 伏而不顯 未必盡無所漏 盡無所舛而稍見知 於世者 蓋少漏且舛矣 四方同宗 聞其事而喜嘉 多有出錢 助其入梓 雖異姓外派

苟有按是道 守是府 及守傍郡者 無不相助 用銀錢數百千 開板於安東府治始祖太師廟
印傳四方 亦有年所則八九百年間 世系族序 開卷燦然 使千枝萬派 知其初之爲一
人而久同路人 欣戚不相關者 苟入吾譜 皆可稽其世次而計其遠近 親愛之心 未必不
由是而油然 其爲國家風化之助 豈特吾一姓之喜而已 夫何宗人中 一二人 以其先
傍註之不備 及佗道人 見漏者 妄意竄刻 改易字次則篇帙 錯亂 承接莫辨 舉全譜
爲無用之書 使諸宗老 十年勤苦 千年始一有之譜 暫行而旋廢 此其所可忍爲者
哉 泰時氏 慨然疚心 與自初同事人 斗韓 處經 及郡守之子輞 更議從舊 欲使之
刊正以行而未及就緒 大耋已嗟 斗韓 處經 及輞 諸宗人 克成前約 鳩若干財 改刻
三四十板 以從舊本則自此 可以印行如前矣 夫人子之將使人 知其親者 欲恃此區區
數行之傍註 其爲計 已末矣而因此亂其譜 使不得傳布則又豈非不思之甚乎 繼自今 或
有如前之做錯者則非但爲吾宗之罪人 以私亂公 亦當有有司之法 諸宗人 以余 適
知是府 使記其改刻顛末 亦有少助而仍爲之跋 俾後人 知所戒 毋或亂吾譜也 己亥
月日 後孫府使 以鎮 謹跋

甲寅譜跋

我權 得姓以後 柯葉分布 殆滿一國 爲東邦蟬聯大族而所謂譜 古則無之 國初以
下二百年間 只有四佳成化譜上下卷刊行 其後 龍巒公 乙巳譜十六卷 草定而未刊

甲午譜一雖刊而單本草草아하所放失이甚多요其餘若公山譜와盤松譜와鑄洞譜도又皆私藏

草本而已니全譜修刊之不易一有如此者라迺於肅廟丙子에嶺中諸宗老懼其散落而無統

緒아하悉取古今諸家本아하加彙槩焉니하合成一本이摠十三卷라이越六年辛巳에始入梓于本府니하吾

家譜一乃得完且成而印布未廣에旋值辛丑大火아하板皆爲燼라이噫乎라何其不倖也오甲辰秋에

宗人等이慨然發議重刊새한前寢郎厚氏一聞而樂成之아하遂發告中外아하更聚各派譜單고하參考辛

本辛巳하辨別疑亂아하出草稿十三帙고하己酉夏에委送于本所아하就加讎校새한凡三易稿아하定爲原

譜十四卷과別譜三卷니하顧其編帙浩穰아하工費許多故로嶺之諸宗이爲收合錢財고하又得湖嶺伯

所助百餘金아하合而子母之아하獲其贏아하六年而後始役니하首尾五朔에乃克斷手라其艱甚矣니茲故

略記前後繼述之勤아하以備門中掌故고하且以示譜事之難이如是云라이

甲寅六月 日 二十六代孫 德秀 謹跋라하노

後甲寅譜序其一

系譜之傳이厥惟難矣라自曾子固之淹博도로已不能無失而有氏族之辨은이而况偏方謏陋之

見哉아惟我安東之權이自太師公以下碩輔名卿이世奕代振아하如漢之金張과晉之王謝니하不

待徵之家譜而於金華之記에可按而知也라然나吾家之重氏族이舊矣오譜牒之修一亦屢矣라

不以赫赫然照人로오爲自夸而以古人系譜之難로오爲可戒니其旨一遠矣라雖然나舊譜之成이今

已六十餘年矣라裕之孫曾行이亦多有承冠且抱子者矣而裕之名이不得入焉니하則計我諸宗之

散在四方者。又凡幾人矣。派別甚繁多。哀輯劇龐蹟。除非數十人之力。數十年之功。有未易了當者。則吾家之譜。其將廢矣。余蓋隱之於心而竊憂之。歲辛亥春。金太師之後。在安東者。爭太師廟奠獻事。妄肆誣詆。安東諸宗氏。函來教告余。余與露章陳辨。遂蒙上特加昭釋。己仍以前所隱憂於心者。諭諸宗氏曰。失今不爲。恐此事便已。諸宗氏。盍相與勉旃。咸曰諾。於是廣搜博訪。勤鳩嚴董。閱四年。工告訖。凡三十四卷。雖其規模例凡。遵承乎成法。而編帙之大。工役之鉅。實倍蓰于前。乃諸宗氏。殫竭心力。用能續成。使我三數世闕典。至是完焉。其志誠且勤矣。而不替吾家重氏族之前矩矣。諸宗氏以裕預知茲役。合有一言。裕辭不獲。余惟是譜也。詳內而略外。重始而謹終。於其枝派之蕃衍也。有以知積德之深厚。於其簪組之輝赫也。有以驗流慶之弘長。凡我諸宗孫子。無徒以是譜之成。爲喜。各自磨濯淬礪。以敦孝悌。廣睦姻。毋或忝爲太師公雲。仍也。則是譜也。未必非他日昌大門戶之一權輿也。非特重氏族之意而已也。

上之十八年甲寅六月 日 二十八代孫前大司諫裕謹識

後甲寅譜序

其二

譜所以普其族。所以叙其事。則譜家之有序也尚矣。然海東之族。莫鉅於我族。海東之譜。莫古於我譜。則今日編述之役。厥惟難矣。其可曰前人之序。己備而不思。所以略叙其事乎哉。我譜自我先祖止齋文景公諱。肇修家牒。翼平公擘。嗣輯之而文。

景之甥徐四佳居正_이踵成圖譜_{야하}刊而行之世_{니하}是所謂成化譜也_라其後_에龍巒公之乙巳譜_와

東谷公之甲午譜_는或藁或梓_{야하}詳略相懸_에俱未成全譜_라明陵辛巳_에生曾祖縣監山澤齋諱泰時

與宗中名選_{로오}合諸家譜_{야하}成原別十三卷_{니하}乃我宗一部惇史也_라刊板_을藏弄始祖廟傍_{니하}煢

于辛丑之火_{새할}從祖松坡公可徵_이若門內長德諸公_{로오}慨然興咨_{사하}徃復于鑄洞叅奉公厚氏_{야하}合

議更修_{새할}歷十年_에始成_{니하}時_이辛巳後三十年甲寅也_라當時_에髻亂未入錄者_이到今幾盡凋零_{요이}

存者亦墓木已拱矣_라今上辛亥_에金氏誣書_가出_{야하}京鄉諸宗_이上章陳辨_{야하}得蒙洗草之恩命_{새할}

迺於南營水閣_에設韋家會_{고하}疏首大司諫裕氏_가起而言曰吾輩且老矣_라及其未死_{야하}能見吾

譜之更成否_아遂定京有司若干人_{야하}文諭于安東諸宗曰我譜自成化來_로四成於安東_{야하}皆刊

於安東_{니하}今茲之事_이豈非僉宗之責歟_{고아하}於是_에齊會陵齋_{야하}排定任員_{고하}宗老焞_과明佑氏_이

與生員思儼_과教官思浩_와幼學聖鳳_{로오}主摠裁事而訪亦與焉_{라이}幼學鼎鉉七紀_이覲生員昌

愈宅孚進士馨復等_이相與左右之_{야하}壬子春_에開局于府中_{고하}收牒編摩_와繕寫讎校_와而事

之大小_를無不復難于京有司_{야하}凡易藁者三_{요이}對同磨勘者七八焉_{라이}癸丑八月_에先刻三卷_{고하}甲

寅三月_에繼刊四卷以下_{니하}六月工告訖_{라이}原譜二十九卷_{요이}別譜五卷_{니하}合三十四卷_{라이}前後得錢

僅四仟緡零_{요이}都辦諸人_이勤幹纖悉_{고하}措處有方_{야하}費省而見功多者_이皆其力也_라噫_라世代寢

遠_{고하}孫支且繁_{니하}編刊之難_이比舊譜_에殆倍蓰矣_라在吾輩_에慙用精力_{니하}而安知無考覈之疎_와闕

遺之恨也_{요리}譜既成_에宗老明佑氏_가詔不佞曰弁跋_이已藉手於京有司二公_{나이하}然_{나하}不可無此間

文字 以記其顛末而吾既耄艾나하子盍代之오리况是譜가 歟與成이皆出於子之祖先乎아訪이辭
不獲命야하乃拊卷而歎曰 我宗이自勝國以來로至于今日에簪組蟬聯야하爲東方甲族나하觀於譜
牒에有道德經術之儒며하有文章才諳之人야하達則銘彝鼎而振聲烈於朝고하窮則獨善私淑而爲後
學師範며하暨忠臣孝子와卓節懿行이聯芳趾美고하輝映千後나하豈不盛哉아顧今我宗之布在八路
者 舉皆其雲仍也라今於按是譜也에各思所以克肖先休야하提躬勉學에常若親承乎詩禮之教
誨를耳面之提命則一氣所感에善端油然야하忠孝才德이自家達邦야하不墜永世之家聲矣나하然
則是譜之修 不徒爲序昭穆篤彝倫之資而抑將有補於國家之風教矣라이詩曰無念爾祖아
聿修厥德하이라此四佳公所引於舊序者를今且申舉之야하以勗我同譜諸君子고하因著任員名字于
編末야하使後之覽者로知京鄉我宗이同心於譜事如此云라이
上之十八年甲寅秋九月 日 二十八世孫 前 兵曹佐郎 訪 謹序라하노

後甲寅譜跋

凡我族譜中 人은同一鼻祖之子孫也라以一人之子孫而至于萬億則一派之中도에尚不知某人
爲某寸親은이况代愈久而派漸分고하散在四而居相遠者 安在其同一子孫之誼哉아苟欲明其
系派고하知其遠近則莫是譜若也라然而一番輯譜야하歷屢年不修則凡厥子孫之生生繼繼者 亦
將昧昧然야하疏者益疏고하遠者益遠나하此所以世譜之不可不重修也라吾宗譜牒之不修者 殆
六十年而賴有花府僉宗之慨然倡議야하因其舊而輯其新야하垂四年 告訖功나하役甚鉅而若是速

成者^는亦諸宗力也^라從茲以往^{로오}同爲一人之子孫者庶無不開卷瞭然而後之繼此而修譜者
亦吾後輩之責^{니이}可不念哉^아今其入梓也^에屬不佞爲之文^{새한}不佞^이於是役^에忝在有司之
列而繫官于朝^{야하}恨不得與諸宗^{로오}周旋於監修之所則作爲文^{야하}以圖不朽^는是固不佞之願也^라
因是而廁名於吾先祖所撰太師廟碑文之下則亦豈不與有榮哉^아至若此譜之所由修^{는하야}亦
必有僉宗之所識於卷中者^니不佞^이不敢贊一言云爾^라甲寅六月日^에後孫嘉善大夫前兵曹叅
判兼同知義禁府事以綱謹跋^{라하노}

丁未譜序

其一

我權^이世代綿遠^{고하}本支蕃衍^{야하}蟬嫣奕閱^이甲于三韓^{니하}究其福澤所致^{면하}亶由太師積德而派
各奉牒^{고하}家各有乘^{야하}其於不忘本之義^에綽乎有餘^{니이}奚事乎大同譜之重修哉^아誠以夫敦友睦
厚風教^을非是不能也^{는언마}每見人遇總功以外親^{면이}不甚敬愛^라吾姓則不億之麗^一徧於國中故
相視也^을尤泛^{야하}殆同路人^{니하}嗟夫^라是可忍乎^아試從今日疎遠者^{야하}溯而上之則原是同祖之
堂從也^오同父之昆季叔伯也^라使是祖是父^로能享海籌之遐齡^{야하}羅列孫曾雲仍於眼前而觀
其楚越看待則其心^이安乎^아否乎^아不佞^이爲京鄉大宗所推薦^{야하}忝居都有司之任^에汲汲然
以親親^{로오}爲先務^{고하}嘗恢議通諭于各門^{야하}雖對遠親^{나이}永禁宗氏之稱而各守兄弟叔姪祖孫之
分^{야하}仍依得姓代數^{고하}排定名字通例^{야하}約以遠近同行^{니하}於是^에舉族^이懽洽^{야하}靡然從之^나或有淪
落遐陬而未及聞者^{고하}亦有安舊踟躕而不果行者^라然^{나이}吾知其終必歸一^{나리}何也^오心發乎誠而

言出乎公_{면이}初不當執迷而立異也_니苟推廣是道則孝親忠君_과愛衆信友_를將見無適而不宜_니
今茲合譜之舉_니亦豈有他意哉_아願我族黨_은勉旃哉_{저언}是役也_는我族弟重奭_이實爲首倡而
家而設所_{고하}躬而董工_{아하}十載之間_에紛議牽掣_{고하}資力艱乏_{아하}幾乎中廢者屢矣_라然_나堅忍持重_{고하}
_{아하}百折不撓故_로竟成其志_{니하}豈不偉哉_아若乃校正若監印任員之進退無常而終始不懈_{고하}
費盡全力者_는惟丙漢丙軾兩叔也_라譜凡四十九編_니刊役告訖_에徵余弁文_{라이}余惟吾族姓譜_를
自我文景公丙申創始之後_로相繼編纂者_를不爲不多而至於大備之譜_{는하야}莫舊甲寅若也
則可見其難於齊一也_은况後乎百餘載_{아하}子孫之盛_이非昔日之比則卷帙之巨_는自不必說_니
斯豈非難之又難乎_아苟非各派諸族_이同聲相應_{면하}詎能望克有其終哉_아余竊喜愈遠愈親之大
願_{니하노}從此成就而後之人_이又能體此心而有所述作則其爲世道之裨益_이豈直吾權一門而
已哉_아於是乎言_{라하노}光武十一年龍在丁未孟夏_에資憲大夫軍部大臣兼任表勳院議定官陸
軍副將勳一等重顯謹序_{라하노}

丁未譜序_{其二}

氏族之有譜久矣_니蓋族姓之派分支別_이如水之一源而分萬派_{고하}木之同根而岐千枝_{니하}雖其派
枝之各殊_나溯究其源本則一也_라然而世代寢遠_{고하}宗支益繁則自然有疎薄厚重之別_{야하}易致路
人之等視_니此譜所以作也_라譜者_는非特記世系叙昭穆而已_요述先祖之蹟_{야하}以追報本之誠_{고하}
敦親睦之誼_{야하}以講同族之愛者也_라亦惟曰孝悌之道也_니惟我安東之權_이自始祖太師公以

下_로名公鉅卿_과文章節行_이表表著顯於國史家乘之間_{야하}歷高麗至今千有餘年_에冠冕赫_{고하}烏
子姓蕃衍_{니하}寔爲東方之大族_{라이}自成化_로勑譜之後_로屢經紹述而若乃大譜則後甲寅以來_로未克重
修者_一今爲百餘年矣_과以故_로族姓之散處京鄉者_一存沒不相聞_{고하}哀慶不相問_{야하}總功以外_는
便同他人_{고하}同派親屬_도亦稱宗氏_{니하}是豈敦睦之義歟_아余庸是慨然_{야하}往在己亥夏_에與族叔丙
澂族兄鍾寬鍾浹_로議及此事_{야하}僉謀詢同_{새일}迺通告國內各宗_{야하}亟定任員_{고하}設所收單_{야하}以
經營大同之譜矣_{니러}辛丑春_에適有與金太師子孫辨詰之事_{야하}自安東宗中_로派送有司幾員_{야하}來
會京師矣_과族兄軍部大臣重顯_이爲陳疏辨誣_{고하}先捐貲出力_{야하}竣立太師公墓神道碑_{고하}尤以修
譜之不可不亟_로商確方便_{야하}凡吾同族之人_로另定同行稱族之規_{니하}其例視甲譜_에爲厚_과於是
選定京鄉有司_{고하}設宗楔于京城及安東_{야하}使之幹辦事務矣_{니러}其後因一二派之立異於合譜_{고하}亦
患資財之艱絀_{야하}纔付刊而旋寢者屢矣_{니러}家弟重樂_이奮然挺身_{야하}以爲此不可以不終也_{야하}爲
辦資金_을擔夯義務_{고하}乃移其板于家而族叔丙漢_과丙軾_이以校正之任_로協議勤勞_{고하}夙宵董役
至今年而竣功_{니하}合計前後九載于茲矣_과爲卷_이凡四十九_로爲帙百五十_로銷費爲九萬餘金
是譜之成_은實重顯兄主贊之力_오重樂弟克峻之功_이居多_과重奭_이素以昧識蔑學_로致力乎
敦宗之誼_{야하}猥猖修譜之論_{야하}備經困難_나賴僉宗族竭誠殫力_{야하}克完厥終_{니하}同族之倖_이顧何如
哉_아是譜也_一雖不敢自謂無遺漏之憾然_{니이}而若因此而益講花樹之誼_{고하}以廣親親之義則庶幾有
補於風化之萬一云爾_과於是乎識_{과하}光武十一年五月下泮_로嘉義大夫前議政府叅贊陸軍叅將

勲三等 重奭 謹識 라 하노

丁未譜跋

上之四十四年丁未孟秋 에 權氏族譜成 니 하 族台重奭 이 走書於重一 야 하 責一言識其由 늘 이 重一 이 何敢當 오 이 리 竊嘗惟族之有譜 는 所以敦宗族溯本源也 라 易之類族辨物 과 周禮之掌治邦族 은 未嘗有譜之名 대 이 로 而實有譜之義焉 니 하 後世譜愈作而譜之義 ㅣ 不講 면 하 斯可以觀世教之降下也 다 로 我權 이 自錫姓以來 로 繁枝炳葉 이 布濩一國 니 하 非譜 면 無以詳 새 일 此前輩所以廣蒐審覈 야 하 定爲一家金石者也 라 成化以還 로 譜凡六成而未克繼修者 ㅣ 且數世 니 以族愈繁 고 하 舉愈羸而難於議擬也 라 徃在己亥 에 重一 이 忝闕宮監造之任 야 하 扶病入都 니 리 時 에 族台重顯重奭 이 方慨然擔舛修成通國合譜 야 하 俾不佞 로 으 幹其事 늘 이 未幾 에 不佞 이 病歸故山 야 하 不復得與聞其議 니 리 今七週朞而功告訖 니 하 諸公之於敦宗述事 에 誠勤篤矣 다 로 抑余因是而有感焉 니 하 노 譜書之修印 이 非難 오 이 體得合譜之義 ㅣ 爲難焉 라 이 凡我族親之同是譜者 는 一以溯本收族 로 으 爲心 고 하 疏者親 며 하 薄者敦 야 하 孝悌行于家而忠烈 이 炳于國 야 하 使一部譜編 로 으 不作遵舊倣例之歸則斯譜之成 이 不惟爲吾宗之倖 라 이 抑亦爲世教民德之裨補也 라 리 謹述是語 야 하 書諸卷尾焉 라 하 노 光武十一年丁未七月上澣 承訓郎 前禁府都事 重一 謹跋 라 하 노

辛丑譜序

譜牒 은 所以收宗族而明昭穆 니 이 宗族不收則昭穆 을 無以明 오 이 而親戚 을 視同路人 니 리 如是而祖 를

何以尊_며宗何以敬乎_아此_一程夫子所言收宗族_은所以厚風俗而天下國家治忽_이由以係焉竊
惟我權之成化譜實是東方姓譜之勑而文忠先祖命其宅相四佳徐相公與次胤文景公所共編
成而宗支之別_과昭穆之序_一爲世所模楷_니可謂吾家一敦史也_과自後諸先公_이克體厥志_아累經
續修而忠孝道德_과聞人達官_이烜赫千年間者_는莫非太師肇祖深仁厚澤_요文景公勤於收宗族
明昭穆_아永以啓開之者_니功亦偉矣_라往自丁未_로至于今又六十年_라其間_에幼而壯者_는老死殆盡
繼而生者_고亦髮種種焉_니不有收而譜之_면又何以明昭穆而不路人視也乎_아乃於己亥冬陵洞
墓祀餞席_에公議峻發_아以翌年春會同于府廟崇報堂_아分定任員_아始開役而各派草單_이四來隨
錄_아整訛謬補闕略_니斤斤焉三易稿_과上系則依舊_고下系則剴煩就簡_아讎校而成帙_니總爲十五
冊_라顧幅員割分南北_아使我同祖之孫_은莫能統一_하是固欠典_니然_나勢也柰何_오祇得俟後焉爾_다
是役也_는視前丁未_에其浩大_一不啻三之一而首尾三載_에克與竣工_니何其勤也_며又何其敏也_오
亦見僉族幹事之能嗣輯之誠也_다劣此老朽_一猥參任首_니責以弁文_새固不敢承而辭不
獲已_아略叙顛趾如右_고復以尊祖敬宗由來之規_로公誦於同譜諸族_니庶毋負先祖先德啓開
之懿云_라大師始祖受姓庚寅後千三十二年辛丑季夏三十三世孫泰源謹序_{하노}

辛丑譜跋

龍集丁酉之十月_에不肖與諸族_로祭太師鼻祖府君於安東之陵洞_고退以餞_에以僉意_로發譜議
於座_나而時_에方致力於太師廟之重建_아未之遑也_오翌年冬_에準備成飛文于國內同祖之族_아

開歲而會于太師廟_{나하} 盖作譜_는 衆願也_라 遂定廳于陵齋而權設於廟齋_{야하} 強二曆而斷手_{나하} 帙爲千餘六百_에 凡九卷而分爲十五冊也_라 至於發凡立例之叅互古今也_와 鴻割梅漏之區分疆域也_와 讎校塗乙之動致金根也_와 豐帙嗇卷之務助經理也_와 彙派紀世之圖便考讀也_는 雖不敢謂盡其善也_나 然_나 始自成化之二卷_{야하} 終至丁未之四十九卷而丁未以還_에 生齒之蕃_이 定有百卷之嫌煩_은 况依漢年表而橫間_과 倣禮宗法而縱行_이 既各異宜於古者_는 審矣_라 噫_라 大同之有今日_은 實惟任司氏是仗而其首倡而躬贊曰泰源寧宰寧洞純命泰哲也_오 汗筆而手摩曰泰勳也_오 蒐單而幹務曰五箕也_오 監梓而董工曰五楠 寧達也_오 就中運籌策而決先後曰相八也_오 省名鈔而替巨貨曰相達也_오 井不可以無籍而捐資獻圖左右周旋曰默翁公宗中若基甲也_라 吾權_이 其布也八域_요 其衆也億麗_과 甲乙於中朝之江漢而名德淵源勲業沙麓_이 垂耀于國史_{나하} 吁_라 可知太師府君之德厚於已而光流於後也_다 譜既八成而刊於安東_이 爲五度則必不以世愈久地且遠_로 忘安東也_나 以不忘安東_로 卜其尊祖之孝_와 親族之悌_를 將自斯譜權輿也_라 是歲太師府君受姓庚寅之一千三十二曆辛丑夏 三十四世孫 寧機 謹跋_{하노}

原系

始祖 二世 三世 四世 五世 六世 七世 八世 九世 十世

權幸 子仁幸 子冊 子均漢 子子彭 子先蓋 子廉 子利興 子伯時 子守中

諱麗史或作行本金郎中 李益齋齋戶長正朝高麗成宗右一品別將 賢云羅人有祖子 孫同名者蓋時俗 然也 爲戶長以郎中爲 副戶長以郎中爲 戶長同正以員外 郎爲副正公自求 爲戶長糾正風俗 仍以世仕蓋麗太 祖統合三韓而各 守其地長民者稱 戶長統兵者稱將 校遣官監之此爲 吏之始也別長戶 職名與外臺同也

氏新羅宗姓敬順 王三年己丑十月 甄萱圍古昌公與 同郡金宣平張貞 夫人陽川許氏父大 匡孔岩村主宣文 此下十餘代墓所 及夫人姓氏皆失 傳 俗稱清道孔 岩村北亭子洞有 大塚傳說權陵也 上三重大臣亞父 英祖丙寅二十八世 燾按本道時遠慕 安東府爲食邑遺 碑尋驗未得 民思公德立廟府 正祖戊申傍居崔哥 破碑入葬之說入 於營府追按尋求 未果高宗癸卯得 誌石而亦因未詳 方收議設壇守護 未遂而禮紀四二 六八年乙亥設壇 建齋置田每年三 九下丁行于壇祀

瓶山麗祖喜曰金 幸能炳幾達權賜 姓權封功授爵拜 大相尋陞三韓壁 功臣大師陞郡爲 安東府爲食邑遺 民思公德立廟府 司並祠金張二公 墓本府西後面天燈 山南造火谷子坐 道說所占中間失 傳成化年間十七 世平昌郡事羅求 得仍爲繼葬二十 四世認撰神道碑 高宗辛丑三十二 世重顯改堅神道 碑正祖丙午建追 遠祠于慶州雲谷 高宗戊辰見撤後 丙辰年間合謀重 建而以士林之論 揭額雲谷書院西 厓柳成龍撰墓碣 參議李慶徽書眉 叟許穆篆判書趙 復陽記碑陰退溪 李文純公浼著增 修記後孫參判應 挺撰廟庭碑後孫

子通 戶長 子就宜 戶長 子仲時 保勝別將 副戶 樞密院副使 長中允 贈殿 中內給事 子守洪 尚書左僕射 子次平 无后 精勇別將 子性源 无后 大禪師 子棣和 无后 子棣達 戶長同正 子至正 戶長佐尹 子英正 戶長別將

子守中 見下 子時中 副戶長

子守平 見下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

子英正 戶長別將